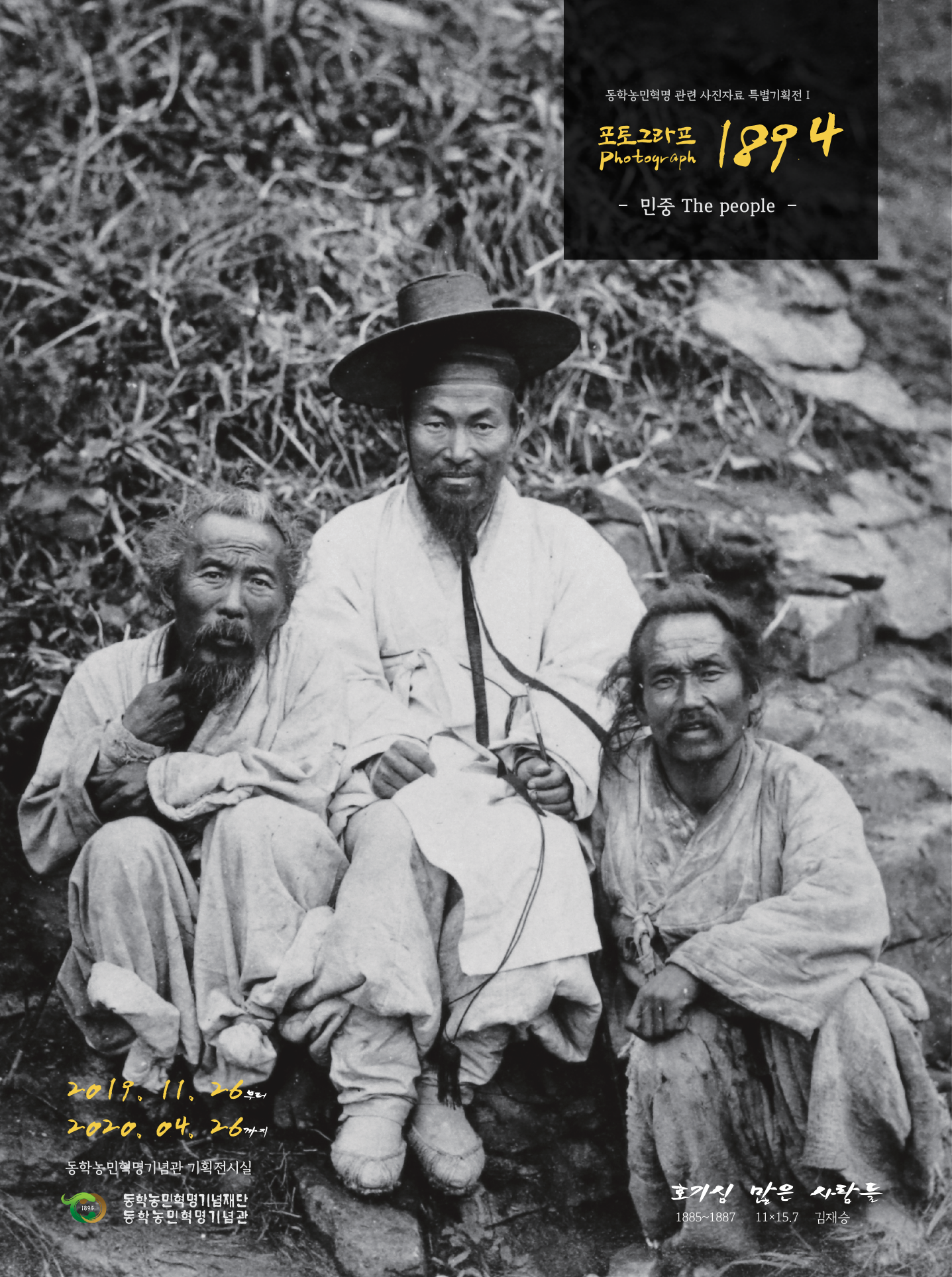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진자료 특별기획전 I

포토그래프 1894
Photograph

- 민중 The people -



2019. 11. 26부터

2020. 04. 26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호기심 많은 사람들

1885~1887 11×15.7 김재승

농두보

2019 | 겨울 | 38호

녹두칼럼

조재곤 /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참여자 유족 인터뷰

최이기 / 참여자 최승문의 고손자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특별 기고문

이이화 역사학자

기념관 특별기획전

포토그래프 Photograph, 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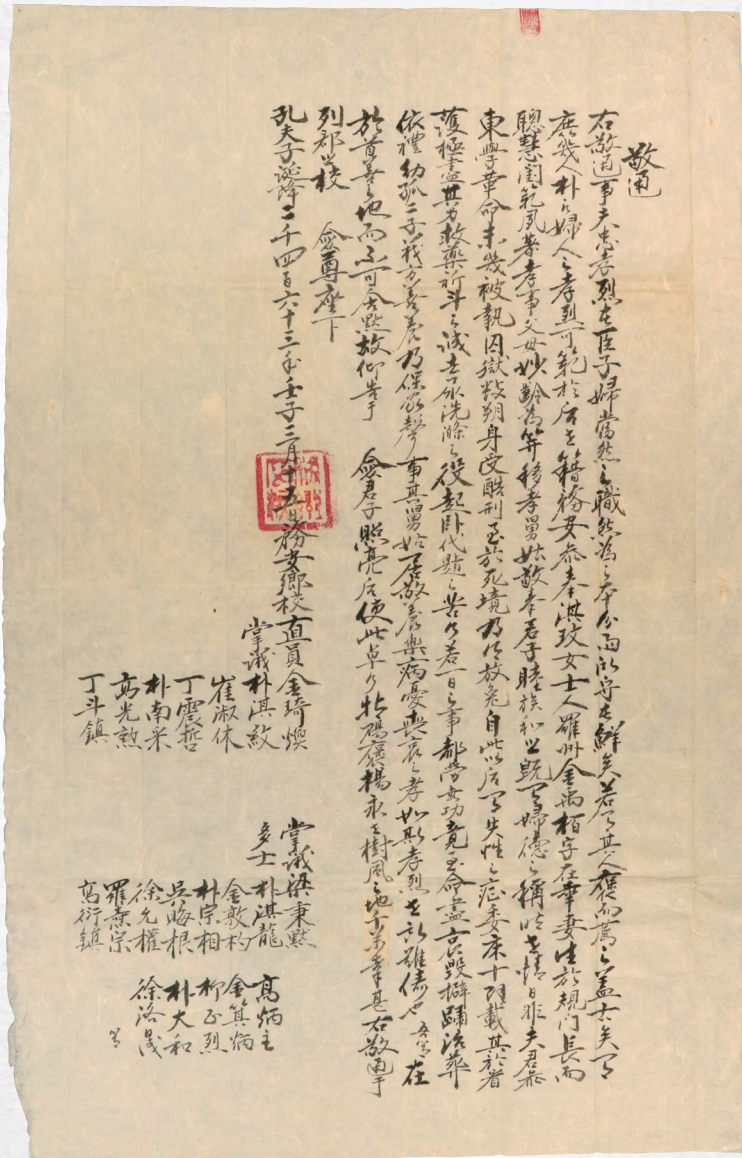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 1912년 57.4×90.5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김정환 기증

이 유물은 1912년 무안향교에서 무안박씨를 포양(褒揚)하기 위해 지역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심한 문초를 당한 끝에 큰 병을 얻은 남편을 16년 동안 극진하게 간호한 무안박씨(동학농민군 김우백의 부인)에 대한 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향교에서 동학농민군의 아내를 포양한 것은 곧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신원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2019 | 겨울 | 38호 목차

- 02 **역사의 눈**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
- 04 **녹두칼럼**
조재곤 / 서강대 연구교수
- 06 **기념재단 포커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천도교 관계자 재단 방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합동 소방훈련
찾아가는 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외자료조사
역사 기념시설 견학 / 독일 베를린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진자료 특별기획전I
- 20 **참여자 유족인터뷰**
최이기 / 참여자 최승문의 고손자
- 26 **시사만평**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 28 **특별 기고문**
이이화 / 역사학자
- 34 **지역단체 포커스**
상주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위령제
제125주년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4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 제향 및
제7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제29회 태안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뮤지컬 「햇불」 공연
제25회 2019 우금티 추모예술제
2019년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추모문화제
2019년도 고창동학농민혁명 심포지엄

- 38 **교육·체험 운영**
녹두꽃, 다시 피다
- 42 **파랑새 소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단체
- 46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녹두꽃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대동의 장]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안에 설치된 '대동의 장'이라는 조형물이다. 삼례는 1894년 여름 일본군이 경복궁 무단점령, 청일전쟁 도발, 친일내각 수립 등 폭거를 자행하자 동학농민군이 10월 8일 전후 제2차 기병(起兵)을 단행한 역사적인 곳이다.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위 글은 갑오년 즉, 1894년 늦가을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가 한참일 무렵인 농민군 유광화가 동생 광팔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유광화는 전라도 나주의 농민군 중 접주급 인물로 집을 나와 수년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동생에게 떠맡기고 자식과 가장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 편지에 담고 있다. 그는 동생에게 투쟁을 위한 자금을 보내달라면서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며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연한 다짐까지 보여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군 유족조사 과정에서 발굴하여 최근 공개한 이 편지는 길지 않지만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의 탄압에 직면해 죽음의 위기에 몰린 농민군 지도자의 시대인식과 비장한 의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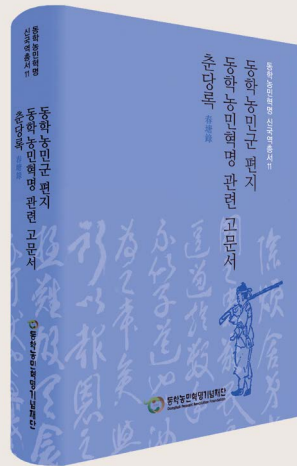
1894년 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쟁 체험을 하였다. 이해는 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청일전쟁 등 여러 가지로 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격동의 시기였다. 동학농민군이 되어 관군과 일본군과 충돌한 현장에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탄압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조선정부는 스스로 해결 능력을 상실하자 주권을 포기하고 청국군의 무력을 통해 탄압하려 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청일전쟁으로 청국과 일본 군대의 전쟁터가 된 곳도 있었으며, 그들의 교두보와 병참선

구실을 한 지역 또한 존재했다. 전제민과 피란민, 인적 물적 동원의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유광화가 동생에게 편지 쓸 무렵 일본군은 농민군에 총부리를 돌려 체포한 사람들을 고문 총살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기록에서도 ‘소살(燒殺)’로 표현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거점촌락도 불태워졌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저서『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분열 대신 결속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이 점에서 보면 당시 일본인들의 정신적 스승이자 게이오대학을 설립한 현재 1만엔 지폐의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어떠한가? 그는 일본은 ‘문명’이고 조선은 ‘야만’이고 청일전쟁은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1894년 7월 27일자 『지지신보(時事新報)』 기고 논설에서 많은 수의 일본군의 조선 출병은 ‘일본이 평화를 주장하는 일을 잘 알 수 있는 증거’로 일본인의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강변을 거듭하였다. 이 주장은 당시 일본정부의 조선침략 정책을 민간에서 재확인하는데 불과하다. 이처럼 후쿠자와의 저급한 말장난과 비교하면 한 평범한 인간이지만 ‘야만의 시대’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국가를 선택하여 비장한 발걸음을 디딘 동학농민군 유광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조재곤 | 한국근대사 전공, 문학박사. 대표저서로는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2017. / 『해천추범 :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편역], 책과 함께, 2007. / 『보부상 : 근대 격변기의 상인』, 서울대출판부, 2003. /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해안, 2001. 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 발간



기념재단에서는 1894년에 작성된 동학농민군 편지 2종과 동학농민군 관련 고문서 45건, 양평의 개인 문집인 「춘당록(春塘錄)」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을 발간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에 수록된 동학농민군의 편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광화·한달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고향의 동생과 어머니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려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동학농민군 편지 2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45건은 기념재단에서 기증을 받거나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춘당록」은 전라도 여산 선비인 양평의 개인 문집으로, 흥선대원군의 밀사로 알려진 소모사 이견영이 농민군과 합세해 일본군을 몰아냈다는 사실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간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에는 총 48건 자료의 번역문과 원문, 영인본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e-donghak.or.kr)에도 탑재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념관 운영위원회



지난 9월 23일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0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전시실 개편, 찾아가는 기념관 사업 및 체험행사 확대, 유물구입, 홍보 등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천도교 관계자 재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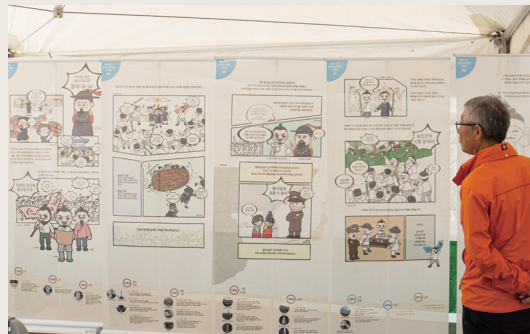
지난 10월 30일 천도교 관계자가 재단을 방문하여 이형규 이사장과 환담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이 협의된 이 자리에는 진동기 기념재단 사무처장, 김춘성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최인경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추진단장, 이윤영 동학혁명연구소장 등이 함께하였다.

기념관 합동 소방훈련



지난 11월 11일 정읍소방서 영원119안전센터와 기념재단 직원 및 방문객 합동으로 소방훈련이 실시되었다. 10월 14일 재단 자체훈련에 이어 정읍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숙지하였다.

찾아가는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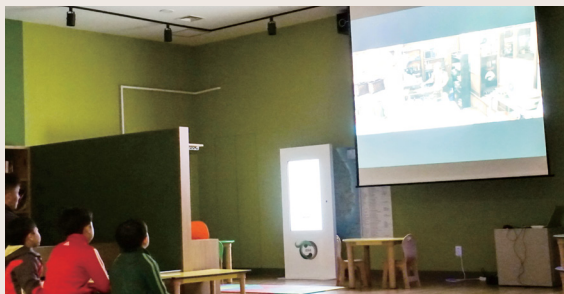
■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 | 11. 4.

지난 11월 4일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추모문화제가 충남 아산시 온천역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은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를 개최하였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교육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을 찾아가는 방문객 중심의 현장 전시이다.

문화가 있는 날



■ 문화공연(10월) | 미술사 홍대기 '고막 마술'



■ 영화상영(10월)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전시해설(10월) | 황토현 역사이야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해설, 영화상영,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외 자료조사



■ 테리 베넷(Terry Bennett)의 수집품



■ 테리 베넷(Terry Bennett)과 기념재단 자료조사팀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외 자료를 조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및 연구의 외연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자료조사팀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하였다. 영국 현지에서 자료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영국인 테리 베넷(Terry Bennett)은 1866년~1920년대 조선을 촬영한 사진, 사진엽서 및 신문자료 등 4,000여 점을 수집한 사진 연구가이다. 자료조사팀은 테리 베넷이 수집한 자료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 695점 [사진 658점, 사진첩 1점(사진 25점 수록), 신문자료 12점]을 확인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47점[사진 10점, 사진첩 1점(사진 25점 수록), 신문자료 12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기획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기념시설 견학 / 독일 베를린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및 준공 후 운영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외 우수의 역사 기념시설을 견학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재단 기념공원 담당자로 구성된 견학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유대인 희생자 추모공원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비롯하여 베를린 장벽과 역사박물관, 유대인 박물관 등을 돌아보았다.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관계자와 업무 협의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

2005년 개관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반성하고, 당시에 희생된 유대인을 잊을 위무(慰撫)하기 위한 추모공원이다. 견학팀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관계자들로부터 기념시설의 건립배경과 시설현황, 추모행사, 운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방문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시 내용물 및 시설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 베를린 장벽



■ 베를린 장벽 현장시찰

■ 베를린 장벽 ■

견학팀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이어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베를린장벽재단을 방문하여 재단에서 주관하는 기념식 및 진행 프로그램, 재단 운영에 따른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곳 방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이후 운영은 물론이고 매년 개최해야 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연과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 독일 역사박물관 전경



□ 독일 역사박물관 관계자와 업무협의

■독일 역사박물관■

1987년 설립된 독일 역사박물관은 유물 100만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7,000여 회의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독일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견학팀은 역사박물관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박물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전시시설을 돌아보았다. 특히 견학팀은 근대농민혁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동학농민혁명과 견줄 수 있는 독일농민전쟁 관련 전시물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내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독일군에게 핍박받고 압살 당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다. 견학팀은 유대인 희생자의 얼굴을 모습을 연상시키는 전시물과 그에 걸맞게 조성된 건축물을 살펴봄으로써 수많은 무명 동학농민군을 추모하는 공간 조성에 필요한 많은 영감을 얻었다.



□ '노이헤 바헤'의 내부에 설치된 케테 콜비츠의 조각상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 전경으로 검은색 대리석 평판에는 '전쟁과 압제의 희생자들에게' 문구가 새겨져 있다.

■노이헤 바헤■

독일 '노이헤 바헤'는 원래 왕궁의 경비 초소였으나 통일 후 전쟁의 참상을 후대에게 알리고,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개조되었다. 이곳에 설치된 조각상인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는 전쟁의 참상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 방문을 통해 견학팀은 일본군과 관군 등 연합 부대에 의한 동학농민군 학살, 그 학살의 아픔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의 예술적 형상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진자료 특별기획전I “포토그래프 Photograph, 1894” - 민중 The People -

기획 | 정명광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 전시실 입구

지난 2019년 11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에서 “포토그래프 Photograph, 1894 -민중 The People-”이라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진자료 특별기획전이 개막되었다. 2020년 4월 26일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 전후 촬영된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이었던 농민들, 민초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부> 다양한 얼굴 조선의 민중, <2부> 삶을 일구는 위대한 땀방울, <3부> 일상이 역사가 된 그들의 생활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시된 사진자료는 1894년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사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 등 95점이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들 모두 동학농민혁명 전후 조선의 농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사진자료들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894년 조선에 들어와 청일전쟁을 취재했던 프랑스 출신의 기자 조르주 비고(Georges Bigot, 1860~1927)가 찍은 사진과 1894년 조선을 다녀간 후 여행기를 남겨 우리에게 알려진 영국의 저명한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 1831~1904)이 찍은 사진들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 변호사 겸 사진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테리 베넷(Terry Bennett, 1950~)이 수집한 1860~1900년대 사진, 김재승 박사(前한국해양대 겸임교수, 1943~2011)가 수집한 1870~1890년대 사진들이 포함되어 전시의 의미를 더해준다.



■ 전시실 내부

1부 | 다양한 얼굴 조선의 민중



▣ 호기심 많은 사람들 | 1885~1887년, 김재승 소장



▣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노인 | 1871년, 테리 베넷 소장, 펠릭스 베아토 촬영

2부 | 삶을 일구는 위대한 땀방울



▣ 소 끌고 가는 농부 |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 추수 |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3부 | 일상이 역사가 된 그들의 생활



▣ 이발사 | 1894년, 가와사키시 시민박물관 소장, 조르주 비고 촬영



▣ 간식 먹는 일꾼 | 1894년, 가와사키시 시민박물관 소장, 조르주 비고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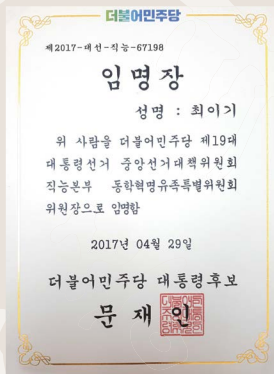
▣ 비숍의 일행들 |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이사벨라 비숍 촬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승문의 고손자 최이기

Q 이번 호 유족 인터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승문(1833~1895)의 고손자 최이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선생님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 승자 문자의 고손자 최이기입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 동학농민혁명유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Q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주주의의 운동임과 동시에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했던 최초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며, 최초 근대 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축소·왜곡된 채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혁명 100주년이던 지난 1994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도 창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2월에는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25년만인 지난 5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주관으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참여자 후손으로서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했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가 주관하여 개최된 첫 번째 기념식인 만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직접 기념식을 개최해주시니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날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셔서 뜻깊은 기념사를 해주셨는데, 다음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 지역이나 체육관 그런 곳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가운데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시작된 근대 최초 민주주의 운동이면서도 왜놈들의 국권침탈에 맞서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전국적인 반일 민족운동이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에 제대로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념식이지만 실무적으로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해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요 이력 : 최이기

미국 에모리대학 정치연수 수료, 중국북경대학 지방자치연수 수료, 서울대 해양정책과정 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과정 이수, 평택대학 범죄예방 교육과정 이수, 평택대학 홍보대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동학농민혁명유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회장 겸 서울 서초을구 연설회장, 민주화 추진협의회 임원 역임 등.

Q 고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요?
또 고조부님의 참여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제 당숙께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셨는데, 그분께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고조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에 참여자와 그 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조부께서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원래 고향은 어디신지요?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봉기한 전 민족적인 사건인데 선생님의 고조부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셨는지요?

A 네, 원래 제 아버지 고향은 전남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예요. 장흥이 고향인데 이후
에 나주 등지로 이사를 다니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까지 고향인 장흥에서 살았고
요. 그 이후로 광주, 지금 광주광역시죠?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희
집안의 고향이 장흥이어서 고조부님도 장흥에 살면서 장흥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조부님의 연세나 집안 형편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없으
신지요? 선생님의 고조부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전해들은 얘기가 있으
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A 고조부께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농토도 변변
치 않은 상태에서 농사로 업을 삼으려니 힘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자식들인
우리가 나주로 광주로 전전했던 거지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조부님은 연세가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조부님 연세가 62세였고 함께 참여했던 고
조부님의 형님(종고조부)도 70세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60세가 넘으
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조부님 뿐 만 아니라 고조부님의 형님도 함께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했던 모든 분들이 그러했겠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분들의 애국
애족 정신은 꼭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께서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2004
년 9월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한 참여자 유족등
록에 서류를 제출하여 2008년에 유족등록이 결정되었지요? 어떤 부분들이 인정되
어 유족으로 등록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고조부님(최승문)과 종고조부님(최진문)이 함께 장흥지역에 이사경 접주가 이끄는 동
학농민군에 가담하여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4년 12월에 있었던 전남
장흥석대들 전투에 참여하신 이후 관군에게 체포되어 두 분이 처형되었다고 하는
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동학농민군을 지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 고조부님이 살았던 장흥 부산면
용반리에서는 일본놈들의 토벌이 있었고 마을 전체가 불탔다고 합니다. 정말 몸살
짓을 했죠. 그때 저희 집안 어르신 분들 뿐 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고 하
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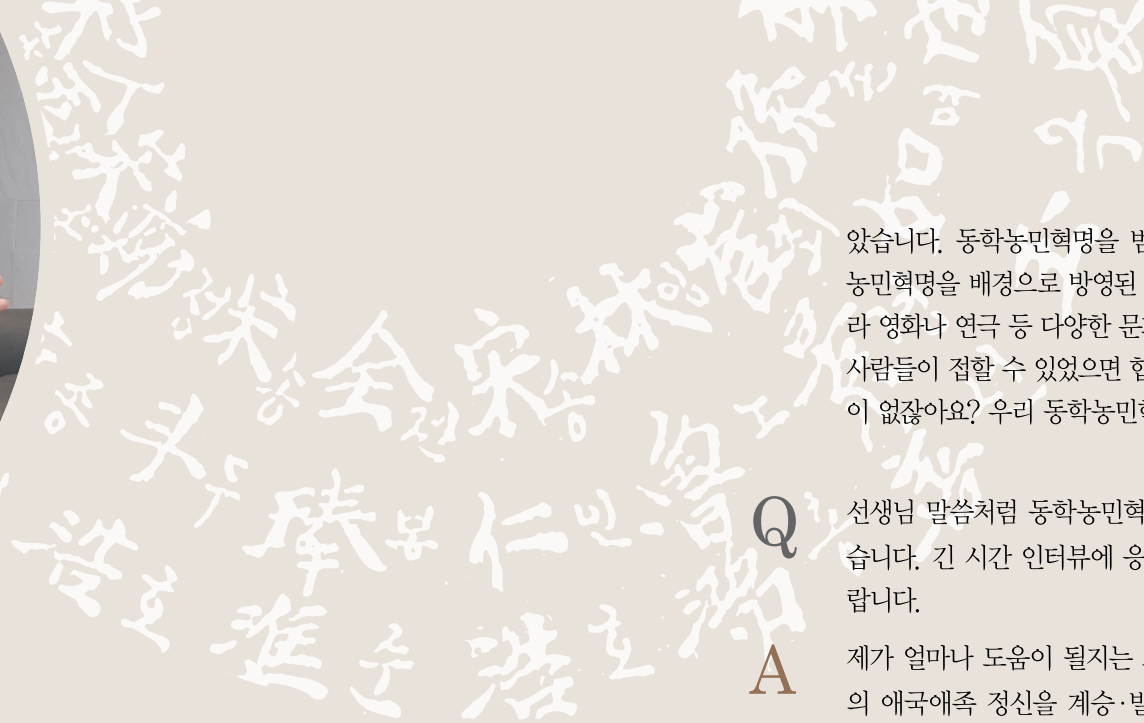
Q 네, 맞습니다. 갑오년에 장흥에서도 1894년 12월 15일(음력) 석대들전투 이후 대대
적인 토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토벌군에 끌려가 처형됐죠. 고조부(최승문)께서 처
형된 이후 시신은 거두셨는지요?

A 고조부(최승문)과 종고조부(최진문)은 장흥 벽사역에서 처형되었다는데, 처형된 후
에 부인들이 뽕공 열어붙어 있는 시신을 찾아서 머리에 이고 돌아와서 남성동에 안
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묘소는 선산인 장흥면 부산면 용반리 남산골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집안에서 고조부님 제사를 모셔오다가 몇 년 전부터 문중에서 시
향제로 전환하여 제를 모시고 있어요.



유족 등록통지서





Q 대부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은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면서 오랜 동안 힘들게 사셨는데, 고조부님(최승문)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이 힘든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후손들이 다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저희 집안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2004년도 특별법에 의해 명예회복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몇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동학농민혁명’하면 ‘반란사건이다’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어디 가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요. 그래서 인지 집안 어른신들도 힘들게 사셨고 저희 아버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남의집살이도 하고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 밤중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 꺾을 등에 지고 오시더라고요. 꺾을 안에는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미제 건빵, 구둣솔 이런저런 물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아버지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고생이 참 많으셨죠.

Q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주관으로 첫 번째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드라마 ‘녹두꽃’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어 갑오년 역사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드라마 녹두꽃을 시청하셨는지요?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A 물론 봤지요.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념식이 거행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을 전후하여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녹두꽃’이 방영되어 아주 좋

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범국민적으로 알리는데 아주 기폭제가 되었잖아요? 중앙방송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방영된 장편의 드라마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나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작품들이 제작되어 공연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바람으로는 프랑스대혁명 그러면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동학농민혁명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Q 선생님 말씀처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력하나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하셨던 집안 어른신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신 아버지께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애잔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아울러 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한 집사람한테도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무쪼록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 최이기념과 부인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만화 | 최영두 (만화가)



동학농민혁명과 흥선대원군에 얽힌 얘기

흥선대원군은 왜 농민군과 손을 잡으려했는가?



이이화

역사학자,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흥선대원군은 10년 동안 권력을 잡고 개혁정치를 폈으나 민비에 의해 죽지 부러진 때의 신세가 되어 운현궁에에서 유폐되었다. 그러면서 재기를 도모하려고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농민군과 손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해 친위세력을 사자로 내세워 전봉준 등 지도자들에게 보냈고 이어 이들 사자들이 지방에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개화정부를 타도하려는 활동을 벌였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않았으나 일본 공사관과 개화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얽힌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지만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하응의 호칭을 흥선대원군으로 써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두자. 대원군은 왕자 또는 왕손으로 임금이 되지 못했으나 아들이 임금이 된 경우 조정에서 특별하게 우대해 붙여지는 존칭이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리해 그 앞에 특정 인물의 호칭을 별도로 붙여 구분해야 한다. 이하응을 그냥 대원군으로 부르지 말고 ‘흥선’을 붙여 표기해야 올바른 호칭이 될 것이다.

전봉준과 해남소년이 운현궁에 나타난 사연



■ 녹두장군 전봉준

이하응은 왕족으로 낙백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린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는 부정한 세도정치를 몰아내고 비리의 온상인 서원을 철폐하였고 경복궁을 재건해 왕실의 위엄을 높였으나 악화인 당백전의 발행, 머느리 민비와의 갈등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인기는 여전히 높았다. 이런 현실조건이 이하응과 전봉준의 관계가 자연스레 설정되었다.

전봉준은 청년시절부터 변혁을 꿈꾸고 많은 동지를 규합했다. 그는 향촌지식인으로서 곳곳에서 훈장을 하면서 개혁에 관한 지식을 쌓기도 했다. 그가 강진일대에 떠돌던 정약용의 저서인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읽었다고도 전해진다. 어느 때에 그가 서울에 올라와서 흥선대원군을 만나려 운현궁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에서 유폐되어 바깥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했다 한다. 시골 선비인 전봉준은 운현궁 사랑채에서 며칠 동안 식객노릇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리만 짜고 있었다 한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이 두어 가지 있었다. 첫째는 키가 유달리 작았다는 것, 둘째는 형형한 눈빛으로 사람을 쏘아보는 점일 것이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을 은밀하게 불러 지긋이 바라보면서, 손바닥에 강(江)의 글자를 써서 보이면서 전봉준을 쏘아보았다 한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람. 뒷사람들은 이를 두고 ‘그대가 군사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오면 내가 호응하겠다.’라는 암시였다고 풀이했단다. 전봉준은 빙긋이 웃고 돌아왔다는 일화.(민속사학자 김화진 증언)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에 유폐되어 있을 때 부엌에서 화약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더욱 경비를 삼엄하게 펼쳤고 흥선대원군은 사랑방에 거처하지 않고 좁은 침방에 거처하였는데 이방에는 한석진 등 측근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한다. 운현궁 넓은 경내에는 장명등을 밤새 켜서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건장한 소년이 긴 칼을 꼬나들고 송정(松亭)에서 계단을 따라 앉은걸음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호위하던 사람들은 칼을 빼들기도 하고 엽총을 꼬나들고 뛰어나가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멀리 던지지 아니하면 총을 쏘겠다.’라고 소리 지르자 놀라 칼을 내던졌다.

이들은 그 소년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삼꾼으로 묶었다. 묶인 소년을 뜰 위에 끌려 앉히고 신문을 하자 그 소년은 묶인 게 너무 아프니 조금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투가 전라도 사투리여서 전라도에서 온 소년임을 알아차렸다. 그 소년은 결박을 풀어주지 않자 힘을 주어 끊어버렸다. 다시 묶으려 하니 그 소년은 달아나지 않겠다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대꾸했다. 그 소년은 전라도 해남에서 살고 있는데 장사하러 서울에 왔다고 말했고 누가 운현궁에 보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일 없이 밤중에 운현궁에 무엇하러 들어왔겠으며,
보낸 사람이 있으면 내 입으로 그 사람을 발하란 말이요?
죽일 죄면 죽이지 더 묻지 마시오.”

뒷전에서 이를 본 흥선대원군이, 그 소년을 놓아 보내라고 분부해서 그 소년은 풀려났다 한다. 이 소년은 운현궁에서 풀려나온 뒤 좌포도청에 잡혔다. 민가네 하수인들이 그 소년을 끌고 가서 죽였다 한다. 이 사실을 전해 준 윤효정은 운현궁을 지키던 한석진과는 친구사이였다. (윤효정, 한말비사) 이 소년은 바로 전봉준이 보낸 사자일 것이다. 전봉준은 거사를 앞두고 이를 운현궁에 알리려 한 게 아닌가? 이를 알아차린 민가네가 잡아 죽인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흥선대원군은 ‘그랬겠지’라고 말했다 한다.(위의 두 일화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다.)

이이화 | 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상임공동대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서 한국 고전 번역과 편찬에 힘을 기울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으로 인식되던 1980년대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헌신적으로 나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과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국화를 견인하였고, 그 결실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저서로는 『한국사 이야기』(전 22권),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전봉준, 혁명의 기록』, 『못 다한 한국사 이야기』, 『허균의 생각』,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변동』 등 100여 권이 있다.



■ 홍선대원군 사진출처 :
화보헌정오십년사(1939년)

일본의 이용물이 된 홍선대원군

일본공사인 오토리는 경복궁 점령의 음모를 꾸민서 각본대로 운현궁으로 달려가 홍선대원군에게 경복궁으로 가자고 유인했다. 이 언저리에는 이미 일본 낭인패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홍선대원군에게 ‘일본 정부의 이번 거사는 실로 의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이 성사된 다음 조선국의 땅을 한 치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홍선대원군은 짐짓 거부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한 척 위의를 차리고 말에 올랐다. 홍선대원군과 오토리 공사는 11시쯤 일본군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면서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다. 오시마 여단장도 오후 5시쯤에 경복궁으로 들어와 고종을 직접 뵈었다. 오토리는 고종을 뵈고 다음과 같이 말을 나누었다.

오토리 : 놀라실 것 같아 문후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개화한다면 두 나라의 교린이

예전보다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고 종 : 나는 손상을 입지 않았소.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보아 함께 교린의 의를 닦는다면

실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길이 될 것이요.

보아다오, 이 대목을 보아다오. 독자들은 이제까지 한 편의 저질 드라마를 감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줄거리는 더욱 저질스러웠다. 일본은 조선 병사들이 일본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도전한 건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변명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경복궁 점령과 고종 유폐는, 부정한 세력인 민가네를 조정에서 몰아내고 농민군이 떠받드는 개혁적인 홍선대원군에게 섭정(攝政)을 맡기면서 조선의 독립과 개혁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짓도 별였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일본 기록에서는 왜곡해 서술했고 공식 보고에도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했으며 신문에도 사실대로 쓰지 못하게 통제했다. 일본인들이 주도해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일본 병사들이 궁궐에 들어왔다.

이날 새벽 일본 병사 2대대가 영추문으로 들어오자 시위 병사들이 발포를 해서

이들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임금의 이를 말리라고 분부했다.

일본 병사들이 드디어 궁궐 문을 지켰다. 오후에 각 병영에 가서 그들 무기를 거두어 갔다.”

(고종실록 31년 6월 21일자)

이처럼 짙막하게 기재하면서 얼버무리며 은폐하려 했다. 고종은 그렇다 치고 홍선대원군은 일본이 내민 손을 잡고서 자신의 상징적 상표인 ‘척왜척양’(斥倭斥洋)의 기치는 어디에다가 뺄까? 바로 자신과 원수 사이인 민비의 날개 죽지를 꺾고 아들 고종을 다시 턱짓으로 부려 보려는 욕망 때문에 ‘역사를 그르친 못난 정객’으로 떨어진 것이다. 고종과 민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것이다. 경복궁을 점령한 뒤 일본 공사관에서는 고종과 민비의 탈출을 막으려 궁궐을 철통 같이 에워쌌다. 이어 일본군은 궁중의 경희루에 궁내본부를 설치하고서 궁내 수비병만이 아니라 도성의 방위를 맡은 서울과 수원의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개화정부와 손을 잡았지만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날, 오토리 공사는 짜인 각본대로 신속하게 신내각을 꾸려 새 정부를 수립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구상과 오토리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본공사관 서기관인 스기무라(杉村濤)의 구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머뭇거릴 일도 없었고 시끄럽게 논란을 벌일 일도 없었다. 노회한 홍선대원군은 파도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본디 일본정부는 농민군이 전주에서 물러난 뒤 청국정부에 조선 내정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물러가자는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청국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건, 이미 농민군이 해산해 군이 두 나라 군대가 진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조선의 개혁은 조선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며 청국은 일찍부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일본도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내란이 이미 진정되어 외국 군사는 천진조약에 따라 철수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 속셈은 접어두고라도 일단 이 회답이 그럴듯하기는 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해 일본정부는 내밀하게 청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고서 새 조선 정부의 수립을 지시했던 것이다. 새 정부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광화문 앞에 있는 의정부에서 처음 회의를 열었다. 이 기구는 성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5.16쿠데타 이후 발족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사생아는 잘 자랄지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군국기무처는 조선의 공식 정부기구가 아니면서 입법과 여러 정책을 만들어 내서 실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책임자로는 총재와 부총재 각 1명씩, 회의원은 16명에서 20인 정도를 두게 구성했다. 초대 총재는 영의정인 김홍집이 겸임했고(후기에는 내각 총리대신으로 바꾸었다) 회의원은 앞뒤시기를 포함해 1기(1894년 6월-11월 사이)에는 대체로, 박정양 민영달 김종한 김가진 김윤식 조희연 이윤용 유길준 어윤중 신기선 등이었다. 홍선대원군의 손자인 머저리 이준용도 끼어들었지만 대체로 온건 개화파로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왕의 전통적 전제 왕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홍선대원군도 아들과 며느리의 입김을 빼려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래서 왕조의 군주인 고종은 아무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최종 결재만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래도 홍선대원군의 입김이 스며들어 있어 회의원은 두 파 곧 홍선대원군파와 김홍집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갑신파, 친미파, 궁정파도 있었다. 김홍집파는 김옥균 계열이 아니라 온건개화파로 성격이 느려터진 게으름뱅이들로 기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초기에는 급진개화파로 일본에 망명해 있는 박영효가 참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끼어들어 내무대신이 되었다. 홍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은 내무협판(차관급)의 자리에 있었는데 박영효는 이준용을 내몰아서, 이로 해 그나마 홍선대원군 세력은 소외되었다.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밀사를 보낸다

홍선대원군의 사자가 남원에 와서 김개남을 만났을 때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감옥에 가두었다 한다. 또 승지 이진영이 와서 임금의 분부라고 하면서 ‘군사를 풀지 말고 힘을 합해 왜를 토벌하라.’라고 하자 김개남이 공손하게 예우했다고도 한다. 또 서장옥이 운현궁에 숨어 있다가 홍선대원군의 비밀 편지를 들고 와 ‘지난 번 해산하라고 효유문을 보낸 건 왜의 협박 때문이니 믿지 말고 군사를 정비해 북상해서 함께 국난에 나아가라.’라고 했다 한다. 황현은 이런 얘기는 적당들이 민심을 현혹하려 와언을 퍼뜨렸지만 백성들은 이런 말을 믿었다고 기록했다. 전라도 여산부의 선비인 양평의 개인 문집 춘당록(春塘錄))에는, 홍선대원군의 밀사로 알려진 소모사 이진영에 관련 내용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적혀 있다. 이진영이 농민군과 합세해 일본군에 대항해 몰아낸다는 사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필사본인 이 사료는 필자가 처음으로 발굴했다) 또 그 자신이 소모사 이진영의 종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진영이 농민군과 손을 잡으려 하자 이를 반대한 사정을 적고 있다. 일본군 정토사령관인 미나미 소시로(南小四郎)는, 여산부사 유제관이 농민군과 내통하거나 도와주고 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해 재판에 회부했는데 여기에 유제관의 활동상이 단편적으로나마 담겨 있다. 여기에 소모사를 보낸 건, ‘바로 도적의 무리를 보듬어 회유하여 그들로써 몽둥이를 만들어 섬나라 왜적들을 매질해 내기 위함이고 소모사가 온 것 또한 왕실에 충성을 바치고 도적의 무리를 교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면 이진영은 누구인가? 이진영은 비록 임금의 유지를 가지고 현지에 왔으나 홍선대원군이 보낸 밀사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는 홍선대원군의 지시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봉준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자들을 만나 남쪽에서 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해 오면서 일본군을 타도하라는 밀령을 받았다고 한다.(황현의 오하기문 등 참고할 것) 이런 내용이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여산부사 유제관도 이진영이 포섭했다는 분위기를 깔고 있다. 유제관은 동학 농민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일본군에게 잡혀 서울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어 전복두와 김개남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와 청주로 진격한 사실을 적고, 자신이, 이들은 비도들이니 손을 잡지 말고 훈신(勳臣)의 자손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자 이진영은 ‘용병의 법도는 성인의 도와 다를 게 없으니 권도(權道, 임시방편의 길)를 행하여 마땅함을 얻는다면 또한 시중(時中)인 것이오, 지금 이 시기에 비록 불러 모으려 하더라도 어찌 한 사람이라도 모집에 응하는 자가 있겠소? 지금 이 군사들 가운데 사대부의 선비와 훈신의 자손이 아닌 이가 없는데 이들을 제쳐두고 어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소?’라고 하면서 타이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진영이 농민군과 합세해 일본군 제거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진영은 홍선대원군이 보낸 사자임은 분명하고 그의 주장은 바로 홍선대원군이 추구한 현실적 방안이었다. 이진영이 호남으로 내려와 전봉준과 김개남을 만나 설득을 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전봉준은 일본 영사관 심문에서, 홍선대원군과의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서 ‘홍선대원군은 유세한 자이므로 나와는 결단코 상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건 홍선대원군과 그 세력을 옹호하려는 뜻일 것이다.

손자도 역적으로 몰렸다

전봉준이 재판을 받을 때 홍선대원군은 일본영사관이나 법무아문에서 한 차례도 문초를 받지 않았다. 홍선대원군이 금상(今上, 현재의 임금)의 아버지였으니 무슨 큰 혐의가 있더라도 함부로 문초할 수 없었고 민심의 동향도 엿보아야 했다. 홍선대원군은 운현궁에서 죽치고 앉아 저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와 달리 권설재판소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판결이 끝난 뒤 법무아문 특별법원에서는 마무리 작업이 전개되었다. 홍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이 농민군과 손을 잡고 역모를 일으키려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재판선언서에서 이렇게 기재했다.

피고 이준용은 작년 6,7월쯤에 동학당이 곳곳에서 봉기해 인심이 흥흥한 때를 타서 피고는 박준양 이태용의 계획에 찬동해 한기선 김국선과 은밀하게 밀의하고 곧 동학당에게 통모하여 경성을 습격하라 하되 경내의 인민이 놀라 대군주 폐하가 난을 다른 곳으로 피하실 것이니 그때를 타서 한쪽으로는 그 부하인 통위병대로써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를 시해하고 한쪽으로는 그의 수하인 흥도를 지휘하여 정부 당로자 중에 김홍집과 조희연과 김가진과 김학우와 안경선과 유길준과 이윤용 등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며 왕위를 찬탈하기를 모계해 이 일이 성취된 뒤 피고 이준용은 왕위에 오르고....

이 역모사건에 연루된 인사들 중에 이준용은 종신 유배형, 박준양 고종주 전동석 최형식 등은 각각 교수형에 처했다. 여기 재판장은 서광범, 판사는 장박이었다. 이 사건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를 일이나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과 함께 다루어 결말을 지은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봉준과 이준용이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준용은 24세였다.

그 뒤 이준용은 2개월 만에 사면되었다. 이준용은 운현궁에서 태어났는데 홍선대원군의 종손, 고종의 장조카였다. 그는 홍선대원군이 죽은 뒤 운현궁의 별관인 화려한 양관(洋館)에 살면서 운현궁의 새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결국 일본이 주는 훈장을 받으면서 친일파가 되는 비극을 낳았다.

홍선대원군과 전봉준, 윤현궁과 이준용에 얽힌 얘기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흥미 있는 소재를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상주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위령제



■ 추모기념 무용 | 살풀이



■ 제례 및 분향

지난 9월 28일 상주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위령제가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봉기) 주최로 상주 왕산 역사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위령제는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소개를 시작으로 추모 무용(살풀이) 및 제례·분향, 문화예술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경북도의원, 정길수·이승일 상주시의원, 박두석 재경상주향우회회장을 비롯하여 참여자 유족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북 상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 낙동병참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전라·충청지역에 비해 일본군과 직접적인 충돌이 많았다. 1894년 9월 22일, 상주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이 대도소를 설치하고 상주 관아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제125주년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기념공연



■ 추모식

지난 10월 9일 제125주년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삼례봉기 역사광장(전북 완주군 신금리)에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주최로 열렸다.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각종공연, 동학농민혁명 봉기제막식, 추모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최기주 임실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등 관계기관, 유족, 완주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북 완주 삼례는 작은 고을이었지만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1894년 9월(음력) 전봉준 장군은 삼례로 들어가 대도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기병을 단행, 반일항전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제14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및 제7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 기념공연 | 진혼무



■ 추모제례 | 김개남장군 고손 김호영 님

지난 10월 19일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제14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및 제7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가 남원 예촌에서 열렸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수영)주최로 거행된 이날 행사는 제향 및 시민문화제(진혼무, 동학농민혁명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로 진행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개남 장군 고손 김호영 님과 김흥기 대접주 증손 김동규 님이 참가하였다. 남원은 김개남 장군이 이끄는 호남좌도의 농민군이 거점으로 활동한 지역이다.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제29회 태안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 기념공연



■ 추모식

지난 10월 29일 태안 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 광장에서 제29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최기중)와 동학농민혁명태안유족회(회장:문영식)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추모제, 문화공연, 분향 및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모제에서는 국민의례, 청수봉전, 기념사, 추모사, 유족 인사, 헌시낭송이 있었고 문화공연으로는 〈1부〉 태안동학농민혁명 뮤지컬 햇불 갈라쇼, 1919 이화학당, 신흥무관학교, 〈2부〉 영들이시어! 영면하소서 공연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기중 태안군기념사업회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김춘성 천도교 종무원장,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의 추모사 등이 진행되었다.

태안동학농민혁명 뮤지컬 「햇불」 공연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 동안 3일에 걸쳐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태안동학농민혁명 뮤지컬 「햇불」(극단 태안문화예술공간 우리동네, 제작총괄 가덕현, 예술감독 성대복, 연출 손인구)이 공연되었다. 뮤지컬 「햇불」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 기포지였던 태안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의병들의 활약상을 주제로 창작되었다. 태안지역 농민군들은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수탈,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서 일어났으며 1894년 9월 그믐날 태안관아를 점령한 후 서산·예산·덕산·해미·덕산 등 내포지역 농민군들과 합세하여 일본군에 맞서 승전하였다. 그 기세를 몰아 홍주성 점령을 시도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저항에 막혀 실패하였으며 이후 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처형되었고 백화산에서도 많은 농민군이 쓰러져 갔다. 뮤지컬 「햇불」을 통해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고 지역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5회 2019 우금티 추모예술제



■ 추모제



■ 추모사

지난 11월 2일 우금티 전적지에서 제25회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사)동학농민전쟁우금치기념사업회(이사장: 박남식)가 주관하고 공주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공주동학농민혁명답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우금티 전투 창작극, 민요 지게상여놀이, 풍물, 기타연주 등에 이어 우금티 추모제례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댕전 만들기, 삼행시 쓰기, 주먹밥 만들기, 판화 등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었다. 우금티 추모예술제에 참석한 김정섭 공주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공주시는 우금티 전투의 동학농민군을 11월의 역사 인물로 선정하고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며 “우금티 방문자센터 및 유적을 상징하는 광장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였다.

2019년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추모문화제



■ 기념대회



■ 문화공연

지난 11월 4일 2019년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추모문화제가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이사장 장명진)가 주관한 이 행사는 사전행사, 기념대회 내빈소개, 개식과 청수봉전, 심고, 주문 3회 합송, 기념사, 유족인사, 추모사, 추모시 낭송, 신페정개혁안과 4개강령, 12개조 군율을 참여자와 함께 낭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문화공연으로 전통무예 천무극 시연, 아산 연극동아리연합 들풀의 '내가 전봉준이다', 시민 자유발언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기평 천안동학농민기념사업회, 전장근 전교조충남지부 지부장, 김학로 당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관계자와 아산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19년도 고창동학농민혁명 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토론회



■ 종합토론



■ 축사

지난 11월 15일(금)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와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한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무장기포의 과정, 범위, 역사적 의의, 활용방안 등 광범위하게 무장기포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유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 학술 토론회는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 유기상 고창군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는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무장기포의 사적지 지정과 활용방안',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 '무장기포의 주요 사료와 역사적 의의',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고창 무장기포의 사적지정과 기포지 범위', 신순철(원광대 명예교수) - '전봉준 생가 터를 통해 본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김양식(충북 연구원), 왕현중(연세대학교 교수),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정성미(원광대학교 교수), 원도연(원광대 교수)가 맡았다.

녹두꽃, 다시 피다

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체험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녹두장군 되어보기, 아기접주 캐릭터 공예품 만들기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드게임, 퍼즐 맞추기, 녹두 골든벨, 유적지 답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중고생과 성인·가족을 위한 생생 문화재 답사프로그램,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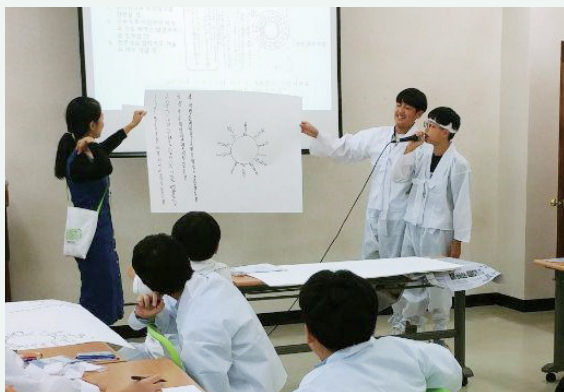
김제 지평선고등학교 (2019.9.6.)



정읍 북초등학교(2019.9.26.)



생생문화재 - 황토현에서 광화문까지(전주 우아중학교, 2019.9.20)



충남 당진시 고대초등학교(2019.9.26.)



광주 어룡초등학교(2019.9.26.)



생생문화재 답사 - 학에서 되어보기(순창중학교, 2019.10.2.)



정읍 정일여자중학교(2019.10.2.)



부안 백산중학교(2019.10.8.)



정읍 정일중학교(2019.10.17.)



익산 황등중학교(2019.10.18.)



정읍 웅동초등학교(2019.10.29.)



정읍 동신초등학교(2019.11.8.)



익산 함열중학교 (2019.10.21.)



정읍지역 병설유치원(2019.10.23.)



전북여자고등학교 답사프로그램 (2019.11.9.)



전주 완산서초등학교(2019.11.12)



정읍 보성초등학교(2019.11.14)



코레일 연계답사-열차타고, 갑오세 가보세(아산 설화고등학교, 2019.10.19)



정읍여자중학교 1학년(2019.11.13)



정읍 덕천초등학교(2019.11.14)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 전적(국가사적 295호)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 단체는 광주 월봉서원 유교아카데미(20명), 정읍시 독서동아리 전봉준캠프(36명), 전문지도연구회(20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400명), 충주시 천년의 향기(35명), 정읍시 사회복지회관(40명), 경주 남산연구소(25명), YMCA 청소년역사기행단(33명), 건설노조 경기남부지역본부(36명), 월남전참전자회 목포시지회(40명),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44명), 굿모닝 여행사(44명), 전북교육청 답사연수(27명), 전북신용보증재단(55명), 정읍시 신규공무원연수(60명), 세종 신허조합원(40명), 전북인재개발원(33명), 일본역사답사팀(25명), 온누리 여행(25명),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온누리(30명) 등 이다.



1 2

① 광주 월봉서원 유교아카데미(20명)

② 정읍시 독서동아리 전봉준캠프(36명)

기념관 방문단체



3 4
5 6
7 8

③ 전문지도연구회(20명)
⑤ 충주시 천년의 향기(35명)
⑦ 경주 남산연구소(25명)

④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400명)
⑥ 정읍시 사회복지회관(40명)
⑧ YMCA청소년 역사기행단(33명)

기념관 방문단체



9	10
11	12
13	14

- ⑨ 건설노조 경기남부지역본부(36명)
- ⑪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44명)
- ⑬ 전북교육청 답사연수(27명)

- ⑩ 월남전참전자회 목포시지회(40명)
- ⑫ 굿모닝 여행사(44명)
- ⑭ 전북신용보증재단(55명)

기념관 방문단체



15	16
17	18
19	20

- ⑮ 정읍시 신규공무원연수(60명)
- ⑰ 전북인재개발원(33명)
- ⑲ 온누리여행(25명)

- ⑯ 세종신탁조합원(40명)
- ⑱ 일본역사답사팀(25명)
- ⑳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온누리(30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9월 23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까지 역사적 조명 나선다
10월 8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군 집단학살의 현장 우금치 가다
10월 10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5주년 기념식 및 봉기비 제막식
10월 16일	충청일보	동학농민혁명 옥천기념사업회 첫발
10월 21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1회 운영
10월 23일	전북일보	음악극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민초들의 삶과 꿈
10월 24일	신아일보	홍천 풍암리, 제125주년 동학혁명 추념식 개최
10월 29일	충청일보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맞아 당시 유적지 답사
10월 29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0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1월 4일	매일일보	동학혁명정신 계승 – 공주우금티 추모예술제 열려
11월 4일	한국일보	日 원로 사학자 “동학농민군 학살 깊이 사죄”
11월 8일	원불교신문	나주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11월 11일	세계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군편지 등 담은 신국역총서11 발간
11월 14일	부안독립신문	부안동학농민혁명사 – 앉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이라
11월 15일	새전북신문	1894년 동학농민군 편지
11월 19일	뉴스메이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지정 학술토론회
11월 20일	OhmyNews	동학농민혁명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11월 25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일어났던 125년 전,민중들은 어떻게 살았나?
11월 25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모습 기록 ‘효행록’, 꽃심상
12월 2일	대전일보	천안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활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